

업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株式市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매각을 통해 러시아는 국고수입 증대와 地域通信網 現代化 資金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지역통신망의 인프라 정비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러시아 通信市場에 참여하고자 하는 外國企業들은 앞서 보았듯이 現地合作進출을 도모하고, 각지역통신회사가 아닌 스바지인 베스트社에 대해 協商力을 발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歐洲經濟室 CIS팀】

動 向

中 · 東歐 動向

NATO가 마드리드 頂上會談을 통해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회원국 加入을 확정된 가운데, NATO 가입에 따른 防衛體制 轉換을 둘러싼 武器販賣競爭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동구국가의 다음 목표인 EU 가입문제가 EU 회원국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리의 對中·동구 輸出실적이 5년만에 감소세로 反轉되었다. 한편, 굴지의 서방 통신업체들이 중·동구 通信市場 先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국유 전기통신공사의 제1단계 사유화를 개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서방 통신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동구, 武器需要 급증

지난 7월 8~9일 개최된 NATO 정상회담

에서 중·동구 3개국의 가입이 발표되는 등 향후 NATO의 중·동구로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방의 무기제조업체

들이 중·동구 武器市場을 先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가입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도 제2진으로 조만간 NATO의 틀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防衛體制 轉換에 따라 중·동구국가들은 舊式 소련제 중심의 現병기형태를 서구제 무기로 대량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투기를 포함한 중·동구의 新무기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국가들의 심각한 財政사정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서구제 병기의 직접구매도 추진하고 있지만, 서방 무기제조업체들에게 自國을 製造據點으로 활용토록 진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물밑교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병기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로, 폴란드 정부는 지난 6월말 신형전투기 100機 구매에 대한 입찰일정을 발표했다. 同 入札件은 전투기 一機當 약 3,000만 달러로 총 3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조달사업이다. 체코와 헝가리도 각각 24機, 30機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NATO 가입이 결정된 3개국만 하더라도 전투기부문만 약 5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동구국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의 대부분은 기종변경이 불가피한바, 폴란드의 경우 1,700량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은 舊式모델이어서 現代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戰車의 신규수요도 엄청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신형병기의 조달에는 보수, 부품조달 등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

이다. 이밖에 군사용 통신기와 레이더, 컴퓨터 등 병기 이외에 개별 군사용품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防衛豫算은 폴란드가 30억 달러, 헝가리가 5억 달러에 불과해, 현상황하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들 국가의 긴축재정 견지를 요구하고 있는 IMF는 최근 루빈 美재무장관에게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이 무기구입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과도한 병기조달로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과도한 무기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低價의 신형전투기를 구입하는 것도 代案으로 검토되고 있다.

헝가리는 自國經濟에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기업에게 병기를 조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서방의 방위기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자국내 후진지역에의 직접투자나 자국제품의 수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예로 스웨덴의 Saab社는 1996년중에만 이미 7,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McDonnell Douglas社도 헝가리産 소프트웨어의 수출비즈니스에 착수하였다. 한편 美해군은 체코에 대해 FA18 전투기 7기에 대해 무상임대를 제안하였고, 체코 정부도 동 제안에 따른 임대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폴란드, 헝가리 등과 동일 機種을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써 1기당 單價를 引下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1〉 최근 중·동구에서의 武器相談件

國 家	對象兵器	相談規模	落札기업 또는 舉論對象業體
폴란드	전투기 100機	30억 달러	美 록히드 마틴社 美 McDonnell Douglas社 스웨덴 Saab社 프랑스 Dasa社
	전투헬기용 미사일 등	6억 달러	이스라엘 엘비트그룹 美 록웰인터내셔널社
체코	전투기 24기	7~8억 달러	美 록히드·마틴社 美 McDonnell Douglas社 스웨덴 Saab社, 프랑스 Dasa社 등
헝가리	전투기 30기	10억 달러	"
	小型 對空미사일	10억 달러	프랑스 매트라社에 落札
루마니아	전투헬기 96機	15억 달러	美國의 Bell Helicopters社 및 텍스트롱社에 落札

자료 : 『日本經濟新聞』, 7월 8일자

EU 회원국간 EU 확대를 둘러싼 갈등 고조

EU 執行委員會는 지난 7월 15일 중·동구 국가들의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Agenda 2000'이란 보고서를 공식 채택, 이를 유럽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同 보고서를 통해 이날 EU의 회원국 확대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우선 가입대상국으로 중·동구 5개국과 키프로스를 지명했다. 이 보고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5개 중·동구국가들과 키프로스를 EU에 참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EU 회원국 가입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이날 발표된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제외된 국가들은 향후 가입준비를 위해

정치·경제적 개혁을 계속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同 보고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EU의 기존 회원국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회원국들이 自國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국가의 가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프랑스는 루마니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바, 프랑스는 몰밀 로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의 NATO 가입이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補償次元에서라도 루마니아의 EU 가입만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새로운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舊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3국은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최선의 방법이 EU 가입이라고 확신

하면서 이웃인 스웨덴 등에 도움을 요청중이다.

한편 獨逸은 중·동구국가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소수정예원칙'을 내세우면서 NATO의 새 회원국이 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국을 제1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이같은 입장 뒤에는 마르크貨의 영향권에 있는 이들 국가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

이러한 각 회원국 입장과는 별도로 중·동구국가의 EU 가입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가입조건이 NATO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對중·동구 輸出, 감소세로 反轉

지난해말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우리의 對중·동구 수출이 금년들어 급기야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구지역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금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18억 5,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포함한 東歐圈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舊소련이 붕괴됐던 지난 1992년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은 1996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41억 3,500만 달러로 5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년 상반기중 이 지역국가에 대한 國別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8억 79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3% 포인트 감소한 것을 비롯, 루마니아가 2억 1,286만 달러로 同 17.4% 포인트 감소, 체코 9%, 헝가리 0.3%, 슬로베니아 20.7%, 슬로바키아 76.6% 포인트

가 각각 감소했다. 폴란드는 4억 4,000만 달러로 同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작년 상반기의 수출증가율 189.4%에 비하면 대폭 둔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구소련이 붕괴됐던 지난 1992년 이후 5년만의 일이다. 러시아 및 동구지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의 경우 전반적인 수출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41억 3,500만 달러로 51.3%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바 있다. 이렇듯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작스럽게 감소세로 反轉된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는 러시아 및 폴란드의 輸入通關檢査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1996년 10월부터, 러시아는 同年 11월부터 正常價格 이하로 들어오는 Under-Value 방지를 위해 통관검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Under-Value 방지를 위한 협력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nder-Value라고 함은 現地수입상이 관세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기준이 되는 送狀價格을 우리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고의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폴란드는 섬유류와 같은 일부 품목에 한해 작년 10월부터 최저과세가격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폴란드의 경우 최근 세무대학 학생들까지 총동원, 직물·가전·식품 등에 대한 全數檢査를 실시하는 등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우리 수출물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폴란드를 경유하는 인근 CIS 국가로의 재수출도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稅收不足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작년말부터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

품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세무사찰 강화로 현지 수입상의 수입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서류심사에서 全數檢査로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 휴대품 반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데다 금년들어 위생검사가 전격 강화되고 지난 5월부터 수입식품의 러시아어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식품의 수출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품질보증(CPT)마크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수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체코의 경우 自國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輸入預置金制度(Import Deposit)가 도입된데다, 슬로바키아도 지난 5월부터 同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수입과징금으로 변경, 부과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1995~96년중 無關稅가 적용되었으나, 금년들어 다시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출감소도 한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루마니아, 電氣通信部門 私有化 개시

루마니아가 조만간 국유 전기통신공사인 Rom Telecom社에 대한 제1차 사유화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매각건은 매각대금 규모가 최소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중·동구 최대의 사유화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6개 신청은행 가운데 10개 주요 투자은행이 선발되었으며, 이들 10개 은행이 정부의 자문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루마니아의 통신시장을 놓고 벌이는 서방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문기관 자리를 놓고서도 높은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금번 매각건이 급진전되고 있는 루마니아의 사유화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구미가 당기는 件일 뿐만 아니라, 중·동구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서방 투자은행들에게는 금번 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同 지역에서의 전기통신부문에서의 이해관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바, 불가리아가 국유 전기통신공사인 Bulgarian Telecom社(BTC)의 전략적인 지분매각을 약속한 바 있고, 몰도바 역시 전기통신부문의 사유화를 서두르고 있다. 불가리아는 이미 BTC 지분매각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독일의 Deutsche Morgan Grenfell社를 지명했다. 게다가 폴란드 정부도 1998년중 국유 전기통신공사인 TPSA(Telekomunikacja Polska)의 사유화를 위한 1단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유화를 실시한 헝가리와 체코에서도 국유 전기통신공사의 추가 지분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헝가리의 국유 전기통신업체인 Matav社의 전략적 지분 67.4%를 17억 2,000만 달러에 매입한 Deutsche Telekom社와 Ameritech社는 1998년중 IPO에서 16%(약 5억 달러)를 빠르면 금년중 공모를 통해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헝가리 정부 역시 자체보유 지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루마니아가 중·동구국가 중 전기통신부문의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이긴 하지만, 同 부문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2개 전국적인 통신망을 갖춘 GSM 이동전화 네트워크가 가동을 개시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캐나다의 Telesystem International Wireless社와 미국의 Airtouch

〈表 2〉中·東歐의 電氣通信部門 私有化現況(97년 7월 현재)

區 分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新유고
私有化 業體名	Estonia Telecom	Matav I	Lattelekom	SPT Telecom	Matav II	Telekom Srbija
賣却日字	1992	1993. 12	1994. 1	1995. 6	1995. 12	1997. 6
引受業者	Baltic TeleAB (Telia 50%, Telecom Finland 50%)	Magyarcom (Deutsche Telekom 50%, Ameritech 50%)	Tilts Communica- tions (Cable & Wireless 63%, Telecom Finland 27%, IFC 10%)	Tel Source (KPN 51%, Swiss PTT 49%)	Magyarcom (Deutsche Telekom 50%, Ameritech 50%)	Stet 29% / OTE 20%
持分引受比率 (%)	49	30	49	27	37	49
賣却代金 (백만 달러)	26.5	875	160	1,320	852	912
access line當 持分價格 (달러)	225	2,319	454	2,173	1,217	889
諮問業體						
賣却者	-	NM Rothschild	-	JP Morgan	Deutsche Morgan Grenfell / CSFB	Natwest
買入者	-	German Sachs	-	Goldman Sachs	-	UBS

資料 : *Financial Times*, 7월 18일자

Communications社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과 France Telecom社가 공동으로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France Telecom社는 Rom Telecom社의 지분매각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 정부는 1단계에서 Rom Telecom社의 지분 30%를 전략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3~5%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1단계

사유화를 1998년 1/4분기 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긴 하나, 관측통들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후 1년반 내지 2년내에 국내외투자자들에게 공모를 통해 제2단계 사유화를 추진할 예정인데, 2단계 사유화가 완료되면 정부는 골든쉐어만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Rom Telecom社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상당한 규모의 후속투자

를 약속하여야 한다.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국내통신시장을 2003년에 개방하려고 하는 바, 同 부문에서 금번 매각건의 낙찰자에게는 2002년말까지만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루마니아의 인구 100명당 電話回線數는 14회선에 불과한 실정인바, 정부는 1997년부터 6년동안 총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2년까지 同 回線數를 30~35회선으로 늘릴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아직 루마니아의 국내 네트워크가 후진적인 수준이지만, Rom Telecom社는 trunk network을 구축하는 등

최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 봄까지 7,000km의 fibre optic cable의 backbone system이 모든 주요 센터와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격자유화를 위해 通信料金の構造改編을 서두르고 있는바, 이를 위해 지난 2월 통신수수료를 실질기준으로 15%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실질기준으로 25%를 추가 인상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料率構造를 관리할 독립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신부문의 성공적인 사유화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歐州經濟室 韓貞澈 專門研究員】